



 <p>중국전문가포럼</p> <p>http://csf.kiep.go.kr/</p> <p>2018. 10. 05.</p>	<p>「이슈&트렌드」</p> <p>中 최신 금융지표 분석, 은행의 기업 대출 '신중'</p> <p>작성 CSF (자료감수: 김익기 중국인민대학 석좌교수)</p>
--	---

-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(人民银行)이 8월 금융지표를 공개함. 8월 중국의 신규 사회용자¹⁾는 1조 5,200억 위안(약 250조 원), 신규 위안화 대출은 1조 2,800억 위안(약 209조 원), 광의통화(M2)는 전년 동기 대비 8.2% 증가함.
- 화하시보망(华夏时报网) 등 일부 매체는 “앞서 몇 개월과 비교하면 사회용자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반등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지만, 신용대출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다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,” 고 지적함.
 - 8월 중국의 신용대출 구조를 살펴보면 가계 부문 대출은 7,012억 위안(약 113조 원) 증가했는데, 그 중 단기 대출이 2,598억 위안(약 42조 원) 늘어났고, 중장기 대출은 4,415억 위안(약 71조 원) 늘어남.
 - 동 기간 비(非) 금융기업 및 기관, 단체의 대출은 6,127억 위안(약 99조 원) 증가했는데, 그 중 단기 대출이 1,748억 위안(약 28조 원) 줄어든 반면, 중장기 대출과 금융어음²⁾은 각각 3,425억 위안(약 55조 원), 4,099억 위안(약 66조 원) 늘어났음.
- 중국 매체는 8월 금융지표로 볼 때,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쉬운데 반해 실물경제의 자금 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함.
- 런핑(连平) 교통은행(交通银行) 수석 경제학자는 “주민대출 비중이 반등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,” 며 “앞서 당국의 통화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부동산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고,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왕성하지만 경제 하강 압력 속에서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 부문의 용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,” 고 설명함.
 - 런핑 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, 올해 8월 중국의 신규 주민대출이 전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.8%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함.
 - 랴오즈밍(廖志明) 텐핑증권(天风证券) 은행업 수석 분석가는 “경제 하강 압력 속에서 신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, 은행들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대출이나 금융어음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 8월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은 비교적 적었다,” 고 설명함.

1) 사회용자(社会融资): 대출자가 전통적인 은행 대출이 아닌 다른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.

2) 금융어음: 기업이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, 보통 만기가 1년 미만으로 기업 어음이 대표적인 경우임.

□ 다행스러운 점은 사회용자가 반등세를 보이고, 부외금융(Off-Balance-Sheet Financing)³⁾이 축소됐다는 점임.

-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(人民银行)이 공개한 8월 금융데이터에 따르면, 8월 신규 사회용자는 1조 5,200억 위안(약 245조 원)으로, 7월의 1조 400억 위안(약 168조 원)에 비해 크게 늘어남.
- 비록 2017년 8월의 1조 5,600억 위안(약 252조 원)에는 못 미치지만, 시장 전망치인 1조 3,000억 위안(약 213조 원)을 웃돌았음.
- 팡배(澎湃) 등 중국 매체는 “비(非)은행권 대출을 의미하는 중국의 사회용자 규모가 현재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으며, 이러한 반등세가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” 이라고 보았음.
- 사회용자의 전반적인 구조도 한층 더 개선되면서 부외금융도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음.
- 8월 부외금융과 관련한 위탁대출과 대부 신탁이 1,895억 위안(약 31조 원) 감소하면서, 사회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11.2%로 떨어졌음.
-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, 중국의 8월 금융데이터 증가율도 전망치보다 양호했음.
- 실물경제의 총 용자 규모를 반영하는 사회용자 규모는 8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(-) 2.4%를 기록했으나, 7월의 -10.7%보다는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면서, 중국 정부의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 역할 강화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됨.

□ 이밖에 중국의 8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비교적 적었고, 광의통화(M2) 증가율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음.

- 8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1조 2,800억 위안(약 209조 원)으로 전년 동기 대비 1,834억 위안(약 30조 원)이 늘어났으나, 시장 전망치인 1조 4,000억 위안(약 229조 원)에는 못 미쳤음.
- 신규 위안화 대출이 적었던데 대해 류위안춘(刘元春) 중국 인민대학(人民大学) 부총장은 “대출 지급 경로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,” 며 “통화정책과 재정정책, 산업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경제의 ‘모세혈관’ 을 원활히 해야 한다,” 고 지적함.
- 8월 중국의 M2는 전년 동기 대비 8.2% 증가해, 시장 예상치인 8.6%를 상회했고, 협의 통화(M1)는 전년 동기 대비 3.9% 늘어났으나, 시장 전망치인 5.3%를 훨씬 밑돌았음.
- 한편, 향후 중국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런펑 수석 경제학자는 “향후 경제 하강 압력을 경감하기 위해 당국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,” 고 언급함. CSF

참고자료

화하시보망(华夏时报网), 팡배(澎湃), 재경망(财经网), 인민망(人民网) 등

3) 부외금융(Off-Balance-Sheet Financing): 리스계약과 같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, 부채 어느 계정에도 나타나지 않는 자본조달 방법을 가리킴.